■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75-401.
http://doi.org/10.17948/kcs.2019..83.375

내지덕(來知德) 『주역집주(周易集注)』의 판본 연구
—장유임(張惟任)본과 고앵영(高爾映)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진(金東鎭)*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주역집주』 판본의 두 계통
3. '권16'의 有無
4. 본문 자구의 異同
5. 게재 도설의 多少
6.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역집주』의 주요판본인 장유임본과 고앵영본을 비교·고찰하여 두 계통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고앵영본에만 실려 있는 도설들의 유래에 대해 밝힌 것이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판식 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장유임본 계통과 고앵영본 계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권16'의 有無다. '卷首'를 제외하고 장유임본 계통은 모두 16권본이지만, 고앵영본 계통은 15권본이다. 장유임본의 '권16'은 「考定繫辭上下傳」, 「補定說卦傳」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앵영본 계통에는 모두 이 두 편이 없다. 둘째는 본문 字句 상의 異同이다. 乾卦 주문(권1)의 비교를 통해 장유임

* 고려대 교육대학원 강사.

본의 주문이 고앵영본에서는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게재된 圖說의 多少다. 고앵영본 계통에는 '권16'이 없는 대신 '卷末' 1권이 부가되어 있는데, 권말의 「附圖」에는 100여 개의 도설이 실려 있으며, 卷首에도 「補遺」란 제목 아래 19개의 도설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장유임본 계통에는 그 도설들이 모두 없다.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 장유임본에는 오직 내지덕이 서문에서 직접 언급한 도설들만이 게재되어 있고, 본문의 자구가 생략되어 있지 않으며, 그가 서문에서도 명시한 「고정계사상하전」과 「보정설괘전」이 보존되어 있고, 특히 이 두 편이 그의 역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유임본 계통이 『주역집주』의 본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善本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고앵영본에만 있는 권수 「보유」의 19개의 도설과 권말 「부도」의 100여 개의 도설이 내지덕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보유」의 19개의 도설은 내지덕의 『일록(日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내지덕의 저작이지만, 「부도」의 도설들은 대다수 명대 학자 호거인(胡居仁)의 『역상초(易像抄)』와 장황(章潢)의 『도서편(圖書編)』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또한 그 이외의 도설들 중 일부가 구구사(瞿九思)와 고앵영 자신의 저작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來知德, 『周易集注』, 張惟任, 高裔映, 『易像抄』, 『圖書編』, 瞿九思.

1. 들어가는 말

『주역집주』[1]는 명말의 역학자 내지덕(來知德: 字矣鮮, 號瞿唐, 1525-1604)의 저작이다. 착종설(錯綜說)로 대표되는 내지덕의 역학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의 『주역집주』는 중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번각되어 유행하였고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도 유입되었다.[2] 그로 인해 『주역집주』의 다양한 판본들이 지금 현재 한국・중국・일본 각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3] 그러나 『주역집주』 역대 판본들이 판각 양식이나 목차・권수 등의 체

1) 『周易集注』의 서명의 경우, 내지덕의 서문과 『주역집주』(장유임본)의 권수제(卷首題)는 '周易集注'로 되어 있지만, 판심제(版心題)는 '易經集注'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역집주'로 통일한다. 또한 '注'자는 여러 판본들에서 '註'로 되어 있는데, 모두 '注'로 통일한다.

2) 특히 조선 후기 내지덕 역학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영우, 「조선 후기 래지덕(來知德) 역학(易學)의 수용과 비판」, 『인문논총』 제72권 제1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5a를 참조.

3) 한국의 소장상황에 대해서는 전인초 主編, 『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經部)』, 서울: 학고방, 2005, 3-12면 및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korcis/. 중국의 소장상황에 대해서는 中國古籍總目編纂委員會 編, 『中國古籍總目(經部一)』, 北京: 中華書局, 2009, 102-104면. 일

재는 물론 본문의 자구(字句) 및 게재된 도설(圖說: 도상과 해설)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내지덕의 역학을 연구할 시 『주역집주』의 판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역집주』의 역대 판본들에 몇 가지 계통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앵흥(謝鶯興)과 오위(吳偉)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4] 사앵흥은 대만의 국가도서관 및 동해대학 소장 판본과 제가(諸家)의 서목류(書目類)들을 바탕으로 『주역집주』 각종 판본의 서지정보를 상세히 비교・고찰하여, 역대 판본에는 강희(康熙) 16년(1677) 고앵영(高裔映, 字雪君) 판각본(이하 고앵영본)을 저본으로 하는 사천(四川) 계통과 숭덕(崇德) 5년(1632) 사응선(史應選, 字念冲) 판각본(이하 사응선본)을 저본으로 하는 절강(浙江) 계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5] 그러나 그의 연구는 상세한 고찰에도 불구하고 사응선본 이전의 주요판본인 장유임(張惟任)[6] 판각본(이하 장유임본)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연구가 주로 서지사항의 비교에 그치고 있어 두 계통 중 어느 것이 선본(善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등 몇 가지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위는 『주역집주』의 초기 판본으로 장유임본, 사응선본, 유안류(劉安劉)본(현재 일실됨)이 존재하지만, 사응선본은 이후 유행하지 못하고 장유임본과 유안류본이 각각 최화(崔嶲)와 고앵영에 의해 중각(重刻)되면서 두 계통이 청대에 유행하였다고 설명한다.[7] 또한 그는 『주역집주』의 초간본으로 알려진 대만국가도서관 소장 '明萬曆二十七年梁山刊本'이 실제로는 장유임본으로, 장유임본이 현재 『주역집주』의 最古 판본이고 그 계통이 초간본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8] 이후 진배영(陳倍榮)은 보다 상세한 고찰을 통

본의 소장상황에 대해서는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http://kanji.zinbun.kyoto-u.ac.jp/kanseki를 참조.

4) 『주역집주』의 역대 판본들에 대해서는 徐芹庭, 陳奇猷 등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계통적으로 파악하려 한 시도는 謝鶯興과 吳偉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徐芹庭, 『來氏易經象數集注』, 北京: 中國書店, 2009, 43-44면; 陳奇猷, 「出版說明」, 『易經集注』, 上海: 上海書店, 1988, 2-4면 참조.

5) 謝鶯興, 「來知德《周易集注》板本考述」, 『東海中文學報』 第一三期, 臺灣東海大學中文系, 2001.

6) 장유임(張惟任)의 생몰연대는 미상이지만, 『陝西通志』 권60, 「人物六」에 "張惟任, 字希聲, 潼關人, 萬曆己卯舉人."이란 기록이 보인다. 己卯는 만력 7년(1579)이다. 謝鶯興, 앞의 글, 113면 참조.

7) 吳偉, 「《周易集注》的早期板本」, 『圖書情報工作』 第十一期,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2011.

8) 같은 글, 144-147면.

해 오위의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9]

이와 같이 상기의 연구들에 의해 『주역집주』의 역대 판본에 두 계통이 존재한다는 점은 밝혀졌지만, 두 계통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易의 도설에서 나타나는 두 판본의 차이는 모든 도설들을 내지덕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내지덕 역학의 연구에서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역집주』의 장유임본과 고앵영본을 비교·고찰하여 두 계통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고앵영본에만 실려 있는 도설들의 유래에 대해서도 대략적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장유임본과 고앵영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권16'의 有無, 둘째는 본문 자구상의 異同, 셋째는 게재된 도설의 多少이다. 그래서 먼저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역집주』의 주요판본들을 두 계통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제3, 제4, 제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측면에서 두 판본 계통에 보이는 차이점들을 고찰하며, 특히 제5장에서는 고앵영본에만 실려있는 易의 도설들이 내지덕과 유관한 것인지, 그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주역집주』 판본의 두 계통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위와 진배영의 연구에 의해 초간본으로 알려진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본이 장유임본과 동 판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주역집주』의 현존 최고 판본은 장유임본이라 할 수 있다. 만력(萬曆) 38년(1610)에 중각된 장유임본은 현재 국내 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직접 본 장유임본은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립도서관 소장본으로, 서명[10]은 '周易

9) 陳倍榮, 「來知德《周易集注》初刻本考」, 『儒家典籍與思想研究』, 北京大學《儒藏》編纂與研究中心, 2013. 진배영은 서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역집주』 초간본의 성립과정을 밝히고, 장유임본을 중심으로 여타 판본들을 비교하여 초간본의 구성과 체재에 대한 대략적인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판본들 사이에 나타나는 체재상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集注'이지만 판심제(版心題)에는 '易經集注'로 되어 있다. 장유임본은 서문, 역의 도설과 잡설(雜說), 역학64괘계몽(易學六十四卦啓蒙)으로 구성된 권수(卷首)를 제외하면 1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수의 서목(序目)을 살펴보면, 중각에 관여한 고거(高擧)·장계방(張繼芳)·황여형(黃汝亨)·장유임의 서문을 배치하고, 이어서 초간본에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곽자장(郭子章), 서박경(徐博卿), 내지덕의 서문이 배치되어 있다. 서문 다음의 「重刻來瞿唐先生易經集注訂校成氏」 말미에 '大明萬曆三十八年重校刻於浙之虎林郡南屛山'이란 서기(署記)가 있어, 간행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다.[11] 호림군에서 간행되었다고 해서 장유임본을 '호림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유임본 계통에 속하는 대표적인 청대 판본으로는 강희 27년(1688)에 간행된 최화(崔華)본과 건륭(乾隆) 46년(1781, 『四庫提要』에 의함)의 사고전서본이 있다. 양자 모두 권수와 1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화본은 국내의 경우 중앙국립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명은 '梁山來知德先生易經集注'이지만 판심은 장유임본과 동일하게 '易經集注'로 되어 있다.[12] 최화본의 권수를 살펴보면, 중각에 관여한 최화·사개총(謝開寵)·왕방기(王方岐)의 서문이 추가되어 있을 뿐, 그 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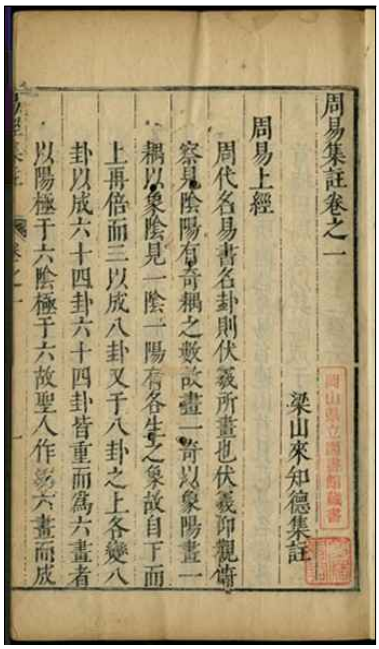
10) 한적(漢籍, 韓籍)의 경우 하나의 책에 여러 제목이 붙어 있어, '서명(書名)'의 용어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서명은 제목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표지에 적혀있는 '표제(表題)', ②속지(표제지)에 적혀있는 '표제(標題)', ③본문이 시작되는 각 권 첫 행에 적혀있는 '권수제(卷首題)', ④판심에 적혀있는 '판심제(版心題)', ⑤본문이 끝나는 각 권 마지막 행에 적혀있는 '권종제(卷終題)', ⑥서문의 제목에 명시된 '서제(序題)', ⑦발문의 제목에 명시된 '발제(跋題)'. 통상 한적의 서명은 ③'권수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따른다. 내제(內題)와 외제(外題)의 구분도 있지만, 내제는 ①'표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분 없이 가리킬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고거의 서문 서기에는 '萬曆辛亥'라 되어 있다. '萬曆辛亥'는 만력 39년으로 '大明萬曆三十八年' 이듬해이다. 「重刻來瞿唐先生易經集注訂校姓氏」에는 고거의 이름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장유임본이 실제 간행된 시기는 만력 39년(1611)일 수 있다. 참고로 岡山縣立圖書館 소장본 『周易集注』는 '萬曆三十九年重刊本'이라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고거의 서기에 근거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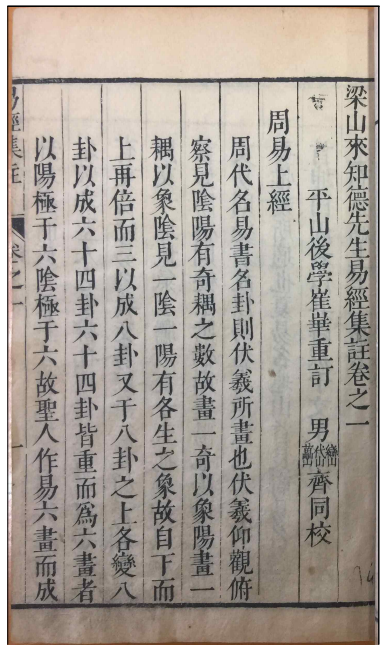
12) 고려대 도서관에는 2종의 최화본이 있다. 하나는 최화본의 초간본으로, 속지에 '易經來注'란 큰 제목이 있고, 그 위에는 '康熙二十七年鐫'(1688)라 적혀 있다. 제목 오른편에는 '梁山來瞿塘光生纂'과 '平山崔蓮生先生重訂'이 병기되어 있으며, 제목 왼편에는 '寶廉堂藏板 翻刻必究'라 적혀 있다. 다른 하나는 최화본의 중간본으로, 속지에 '易經來注'란 큰 제목이 있고, 그 위에는 '乾隆十一七年重鐫'(1746)라 적혀 있다. 제목 오른편은 초간본과 같지만, 제목 왼편에는 '懷德堂藏板'이라 적혀 있다.

장유임본과 같다. 최화의 서문 말미에 '康熙二十七年歲次戊辰中冬上浣'과 '平山後學崔華蓮生父題於鹽署之寶康堂'이란 서기가 있다. 보렴당에서 간행되었다고 해서 최화본을 '보렴당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최화본과 장유임본을 비교해보면, 9행 20자로 행관 등 판식(板式)이 거의 동일하고, 사진의 '陰', '象'자에서 알 수 있듯이 글자체도 같으며 판심제도 '역경집주'로 동일하다. 자구의 이동(異同)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오탈자도 같아[13], 최화본이 장유임본의 복각본(覆刻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上海書店에서 간행한 『易經集注』(1988)는 이 최화본의 영인본이다.


周易集註卷之一
梁山來知德集註
周易上經
周代名易書名卦則伏羲所畫也伏羲仰觀俯
察見陰陽有奇耦之數故畫一奇以象陽畫一
耦以象陰見一陰一陽有各生之象故自下而
上再倍而三以成八卦又于八卦之上各變八
卦以成六十四卦六十四卦皆重而爲六畫者
以陽極于六陰極于六故聖人作易六畫而成

(사진1) 장유임본[14]


梁山來知德先生易經集註卷之一
平山後學崔華重訂　男
齊同校
周易上經
周代名易書名卦則伏羲所畫也伏羲仰觀俯
察見陰陽有奇耦之數故畫一奇以象陽畫一
耦以象陰見一陰一陽有各生之象故自下而
上再倍而三以成八卦又于八卦之上各變八
卦以成六十四卦六十四卦皆重而爲六畫者
以陽極于六陰極于六故聖人作易六畫而成

(사진2) 최화본[15]

13) 일례로 『주역집주』 卷首에 실려 있는 '八卦所屬相錯圖'에서 艮兌의 '팔괘소속상착도' 제목만 장유임본과 최화본 모두 '八卦所屬相綜圖'로 되어 있다. 여기서 '綜'자는 '錯'의 오자다.

14) 日本 岡山縣立圖書館 소장본. 위 사진은 현재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에서 공개 중.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http://kanji.zinbun.kyoto-u.ac.jp/kanseki? record=data/FAOKAYAMAKEN/tagged/0535000.dat&back=1(2019.03.30 검색).

15)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康熙二十七年刊本).

사고전서본의 경우 서명은 '周易集注'로 되어 있으며 판심제도 동일하다. 권수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고 내지덕의 자서(自序) 이외의 서문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성은 장유임본과 같다. 또한 본문에서 자구의 이동이 간혹 보이지만 매우 드물며, 전체적으로는 장유임본과 동일하여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앵영본에 대해 살펴보자. 고앵영본은 청대에 가장 유행한『주역집주』판본이다. 그래서 고앵영본 계통의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서목(書目)류와 도서관의 서지사항에 기록된 서명, 간행정보, 권수 체재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판본 계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필자가 확인한 판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간행자와 간행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앵영본의 대표적 판본에는 ①강희 16년(1677)의 고앵영본, ②옹정(雍正) 7년(1729)의 주대장(周大璋)본, ③가경(嘉慶) 14년(1809)의 부영배(符永培)본이 있다.

고앵영본 계통의 판본에만 실려 있는 고앵영의 「범례(凡例)」에는 "이 책은 수년 동안의 검토와 수차례의 교감, 그리고 다섯 차례의 필사를 거쳐 비로소 간행에 들어가, 乙卯년 仲春월에 시작해 丁巳년 孟春월에 완성되었다."[16]는 기록이 있어, 고앵영본의 간행시기가 강희 16년(丁巳)임을 알 수 있다.[17] 단 고앵영본 계통의 판본들 중 어느 것이 초간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육의헌(六宜軒)본이 고앵영본 계통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 판단된다.[18]

고앵영본(육의헌본)의 서명은 '新刻來瞿唐先生易注', 판심제는 '周易批點來注'로 되어 있다. 판심 아래에는 모두 '조상당(朝爽堂)'이라는 목판을 판각한 당

16) 高嗣映, 「凡例」,『新刻來瞿唐先生易注』卷首. "一是集訪經數歲, 校經幾手, 飜寫五過, 始付殺青, 始於乙卯之仲春, 告竣於丁巳之孟春."

17) 이에 대해서는 謝鶯興, 앞의 글, 124-125면을 참조.

1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육의헌본은『新刻來瞿唐先生易注』(奎中 2842)로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육의헌본과 동일 판본이다. 단 후자는 총 8책의 완본이지만, 전자는 제1책(1-3권)과 末冊(採圖・後跋)이 없는 결본이다. 이 육의헌본에 대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서지정보와 해제에서, 간기(刊記) 및 간행연대가 '숭정 16년(1643)'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할 오류이다. '숭정 16년'은 유지발의 서문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육의헌본의 간행 연대는 「범례」의 '강희 16년(1677)'보다 앞설 수 없다. 각주 23)을 참조할 것.

호(堂號)가 기록되어 있다.[19] 표지 다음의 첫 장에 기록된 '六宜軒藏板'의 '육의헌'은 목판의 소장 및 간행장소를 나타내는 듯하다.[20] 표지 뒷면의 제목은 '瞿唐易注'로 되어 있으며, 그 왼편에는 '永川凌厚子先生圈點'과 '廬陵高雪君先生讐交'가 병기되어 있다.[21] 서목(序目)을 살펴보면 육의헌본의 경우 '張(미상)序, 姚(文燮)序, (8행 공란) 高(翀映)序, 疏(劉之勃), 劉(之勃)序, 郭(子章)序, 來自序'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장서'가 없고 '고서' 앞에 능부돈(凌夫惇, 字厚子)의 서문이 실려 있다.[22] 사앵흥은 疏와 序의 저자인 유지발(劉之勃)이 바로 숭정 연간에 『주역집주』를 증각한 유안류임을 밝혔고[23], 오위는 능부돈의 권점본(圈點本)을 저본으로 하는 고앵영본이 현재는 일실된 유안류본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음을 밝혔다.[24] 그래서 고앵영본 계통은 유안류본 계통이라 불리기도 한다.

옹정 7년(1729)의 주대장(字는 聘侯)본은 국내에는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추가된 주대장의 서문(「重刻來先生易經圖注全解序」) 말미에 '雍正七年己酉季秋皖桐後學周大璋聘侯氏拜撰於金陵寶旭書舍'

---

19) 사앵흥은 朝爽堂本에서 '玄'자가 결필(缺筆)되어 있지만 '顯'자는 피휘(避諱)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조상당본이 강희 연간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謝鶯興, 앞의 글, 125면. 그러나 서목류나 도서관의 서지사항에 '朝爽堂本'으로 기록되어 있는 판본들은 고앵영본의 중간(重刊)본일 가능성이 높다.

20) 일례로, 『無求備齋易經集成』 63-66권에 수록된 영인본도 판심 아래에 모두 '朝爽堂'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권1의 첫 행에는 '文選樓藏板'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상당'에서 처음 판각된 고앵영본의 목판이 '육의헌', '문선루' 등에서 간행되며 유행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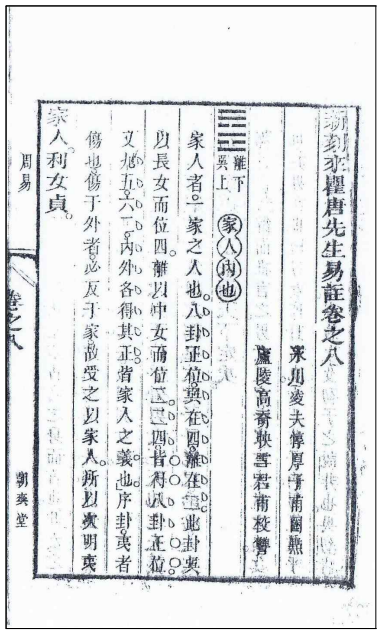
21) 高翀映, 「瞿唐顧學孔子一以貫之我」, 『新刻來瞿唐先生易注』 卷首. "映浪游巴蜀, 訪獲學使凌厚子先生圈點瞿唐易經圖象全解一書, 拜受歸來." 이를 통해 고앵영본이 능부돈의 권점본 『瞿唐易經圖象全解』(현재 일실)를 저본으로 삼아 고앵영이 교수(校讎)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無求備齋易經集成』 63-66권에 수록된 영인본의 경우, 능부돈의 서문(「重刻瞿唐來夫子易注序」)과 내지덕의 자서 이외의 서문들이 생략되어 있고, 고앵영의 서문(「來矣鮮先生易序」)은 고앵영의 「瞿唐顧學孔子一以貫之我」란 글로 대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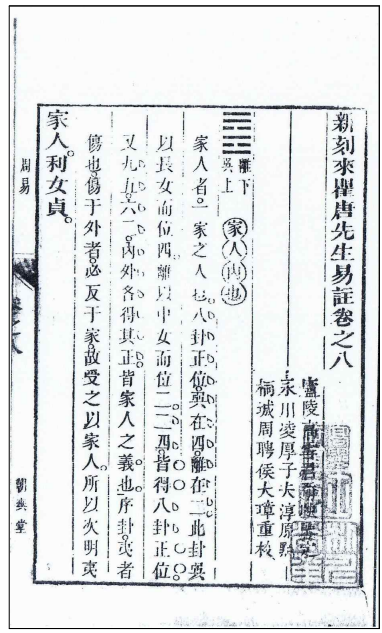
23) 謝鶯興, 앞의 글, 119면. 그에 따르면, 劉子勃의 疏와 序에는 '崇禎癸未十六年'(1643)이란 서명이 있고, 고앵영본 계통의 卷首에 실린 고앵영의 「瞿唐先生傳」에는 "숭정 계미년에 주사 유안류가 상소를 올려 (내지덕의) 제사를 청하였다[崇禎癸未柱史劉君安劉疏請祀典]"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지발이 유안류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4) 吳偉, 앞의 글, 146면. 이에 덧붙이자면, 육의헌본에는 유지발과 곽자장의 서문이 '내주원서(來注原序)'라는 제목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고앵영본과 유안류본의 긴밀한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란 서기가 있어, 간행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다. 고앵영본과 비교해보면 서문의 구성과 권종제(卷終題)의 유무[25]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진에서와 같이 서명과 판심제가 동일하고 판심 아래에는 '朝爽堂'이 기록되어 있으며, 9행 22자로 행관(行款) 등 판식, 글자체도 동일하다. 본문 자구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대장본이 육의헌본의 복각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앵영본 계통의 모든 판본에는 64괘의 부호 아래에 「잡괘전」의 해당 구절이 원에 둘러싸여 추가되어 있고, 고앵영이 「범례」에 밝힌 다섯 종류의 권점(圈點)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도 고앵영본 계통과 장유임본 계통을 구분할 수 있다.



(사진3) 고앵영본(육의헌본)[26]



(사진4) 주대장본[27]

25) 육의헌본의 경우 본문 각 권 마지막 행에 '周易集注卷之○終'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대장본에는 없다.

2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中 2842).

2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中 4739).

가경 14년(己巳, 1809)의 부영배본은 판심 아래에 '寧遠堂'이라는 당호가 기록되어 있어 영원당본이라 불리기도 한다. 표지 뒷면 중앙에 '重刻易經來注'란 제목이 있고 그 오른편에 '嘉慶己巳', 제목 위에 '校對無訛'가 기록되어 있다. 주대장본과 비교하여 부영배의 발문(「重刻易經來注跋」)이 추가되어 있을 뿐 자구나 행관 등 판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판심제는 같지만 서명은 '來瞿唐先生易注'로 '新刻' 두 글자가 빠져 있고, 간행자를 표시한 2행과 3행 중간에 '寧陵符永培子田重刊'이라고만 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선성당(善成堂)본은 부영배본의 중간본이다. 선성당본의 경우 표지 뒷면의 제목은 '易經來注圖解'로 되어 있으며 그 오른편에는 '凌厚子先生批點', 왼편에는 '讀易了然 善成堂藏板'이 기록되어 있다. 판심 아래의 당호는 대부분 영원당이지만 일부는 '세흥당(世興堂)', '동지당(同志堂)', '세성당(世星堂)'으로 되어 있다.[28] 사앵흥이 인용하고 있는 『中國板刻綜錄』에 따르면, 사천의 영원당이 가경 14년에 『來瞿唐先生易注』를 간행하였고, 도광 연간에 사천의 세흥당과 중경의 선성당이 영원당본을 중간하였다'고 한다.[29] 이를 통해 부영배본이 가경, 도광 연간에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民國 8년(1919) 중국 江東書局에서 간행된 石印本 『新刻來瞿唐先生易注』도 고앵영본 계통이며, 중국 巴蜀書舍에서 간행된 『易經來注圖解』(1988, 鄭燦訂正)는 그것의 영인본이다.[30]

이와 같이 청대에 유행한 『주역집주』의 판본들은 장유임본과 고앵영본 두 계통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두 판본 계통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서문과 도설 등으로 구성된 권수를 제외하고, 장유임본 계통은 모두 16권본

28) 이러한 특징은 대만 동해대학에 소장된 寧遠堂本과 동일하지만, 그 판본의 경우 표지 뒷면에 '嘉慶己巳'(14년)와 '重刻易經來注'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대만 동해대학에 소장된 寧遠堂本에 대해서는 謝鶯興, 앞의 글, 136-140면 참조. 필자가 일본의 고서점에서 본 寧遠堂本(二十册, 二函)도, 표지 뒷면에 '嘉慶己巳'와 '重刻易經來注'가 기록되어 있지만, 판심 아래의 당호는 모두 '寧遠堂'으로 되어 있었다.

29) 謝鶯興, 앞의 글, 141면 참조.

30) 사앵흥은 鄭燦訂正本과 대만 동해대학에 소장된 寧遠堂本, 『무구비재역경집성』에 수록된 朝爽堂本 영인본을 바탕으로, 서지사항 및 卷首 구성상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하고 있다. 謝鶯興, 앞의 글, 136-140면. 그러나 사앵흥은 자신이 비교한 세 판본이 모두 같은 고앵영본 계통임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이지만, 고앵영본 계통은 15권본이다. 또한 고앵영본 계통에는 권수에 고앵영의 「범례」, 「來圖補遺」, 「瞿唐先生傳」 등이 추가되어 있고, '부도(附圖)'란 제목의 권말(卷末) 1권이 존재한다. 즉 장유임본의 '권16'이 고앵영본에는 없고, 고앵영본의 '권말'이 장유임본에는 없는 것이다.[31] 먼저 '권16'의 유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권16'의 有無

장유임본의 권16은 「考定繫辭上下傳」(이하 「고정계사」)와, 「補定說卦傳」(이하 「보정설괘」)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앵영본 계통(15권본)에는 권16 및 위의 두 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앵영의 「범례」에는, "유안류가 『주역집주』를 증각하면서 번쇄하고 중복된 자구 및 「고정계사」와 「보정설괘」를 삭제하였다"[32]는 기록이 있는데, 고앵영본이 유안류본의 체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집주』의 「계사전」(권13, 14)과 「설괘전」(권15)에서 내지덕의 주해가 주희의 분장(分章)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안류나 고앵영은 권16의 두 편을 단순히 중복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편은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33]

「고정계사」는 「계사전」 원문을 내지덕 자신이 '상고하여 바로잡았다[考定]'는 의미이다. 단 「고정계사」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가 '고정'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 얼핏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정계사」에는 내지덕이 '고정'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계사상」의 제8장 및 「계사하」의 제5장은 총 18개의 효사(爻辭)에 대한 공자의 해설로 이루어져

31) 참고로 청조 왕실의 후예인 대만의 육윤(毓鋆, 1906-2011) 선생이 천덕횡사(天德黌舍)의 강학용으로 제작한 『주역집주』 표점본을 '자은본(慈恩本)'이라 하는데, 이 자은본의 경우 책 제목이 '易經來注圖解'로 '권16'이 없고 '卷末' 「附圖」의 도설들을 싣고 있지만, 권1-15의 본문은 장유임본 계통이다.

32) 高爾映, 「凡例」, 『新刻來瞿唐先生易注』 卷首. "劉安劉重刻, 芟煩覆重複之語及考定繫辭補定卦說." '卦說'은 '說卦'의 오자.

33) 진배영 또한 '권16'의 유무가 두 판본 계통의 주요 차이점임을 밝히고 있지만, 두 편이 그의 역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陳培英, 앞의 글, 206-207면 참조.

있는데, 내지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사상」, 「계사하」에 각각 9효씩 재배열하고 있다.(원 안의 번호는 내지덕이 재배열한 순서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해당효사의 괘효명 및 본래의 「계사전」 위치를 나타낸다.)

○「考定繫辭上」 第8章
①子曰危者安其位者也 (…) 繫于包桑. (否九五, 下 5章)
②同人先號咷而後笑 (…) 其臭如蘭. (同人九五, 上 8章)
③易曰自天祐之 (…) 吉無不利也. (大有上九, 上 12章)
④勞謙君子有終 (…) 以存其位者也.[34] (謙九三, 上 8章)
⑤子曰知幾其神乎 (…) 萬夫之望. (豫六二, 下 5章)
⑥子曰小人不恥不仁 (…) 此之謂也. (噬嗑初九, 下 5章)
⑦善不積不足以成名 (…) 何校滅耳凶. (噬嗑上九, 下 5章)
⑧子曰顔氏之子 (…) 無祇悔元吉. (復初九, 下 5章)
⑨初六藉用白茅 (…) 其無所失矣. (大過初六, 上 8章)

○「考定繫辭下」 第5章
①易曰憧憧往來 (…) 德之盛也. (咸九四, 下 5章)
②子曰作易者其知盜乎 (…) 盜之招也. (解六三, 上 8章)
③易曰公用射隼 (…) 語成器而動者也. (解上六, 下 5章)
④天地絪縕 (…) 言致一也. (損六三, 下 5章)
⑤子曰君子安其身 (…) 立心勿恒凶. (益上九, 下 5章)
⑥易曰困于石 (…) 妻其可得見邪. (困六三, 下 5章)
⑦子曰德薄而位尊 (…) 言不勝其任也. (鼎九四, 下 5章)
⑧不出戶庭 (…) 是以君子密愼而不出也. (節初九, 上 8章)
⑨鳴鶴在陰 (…) 可不愼乎. (中孚九二, 上 8章)

위와 같이 내지덕이 재배열한 효사의 순서는 통행본 『주역』의 상하 분권(分卷) 및 64괘 순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본래 「계사하」 제5장에 있던 비・예・서합・복괘의 효사들을 「계사상」 제8장에 배치하고 본래 「계사상」 제8장에 있던 해・절・중부괘의 효사들을 「계사하」 제5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34) 이 다음에 "亢龍有悔. 子曰, 貴而無位, 高而無民, 賢人在下位而無輔, 是以動而有悔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지덕은 이 구절을 乾卦 「文言傳」의 重出로 보는 주희의 설에 따라 「考定繫辭」에서는 삭제하고 있다.

이는 통행본 『주역』의 상하 분권에 근거하여 상권에 속한 괘를 「계사상」에, 하권에 속한 괘를 「계사하」에 재배치하고, 다시 64괘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 것이다. 내지덕이 재배열한 18개 효사의 순서는 통행본 『주역』의 괘 순서와 정확히 부합한다.

이러한 내지덕의 '고정'은, 그의 역학의 주요이론인 '착종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착종설이란, 『주역』의 상하 분권과 64괘의 배열에 담긴 착종의 원리가 문왕의 『주역』 창작 원리로서, 『주역』 전체, 즉 문왕의 괘사와 주공의 효사는 물론 그 뜻을 해설한 공자의 십익(十翼)을 관통한다는 이론이다.[35] 「고정계사」는 자신의 착종설을 바탕으로 「계사전」을 바로잡아 착종의 원리가 공자의 「계사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음을 보이려 한 것으로, 그의 역학체계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정설괘」는 기존 「설괘전」에 내지덕이 팔괘의 상(象)을 보충해 넣은 것이다. 「보정설괘」의 분장은 주희의 『주역본의』를 따르면서, "乾爲天爲圜 (…)"으로 시작하는 「설괘전」 마지막 장(제11장) 원문에 『주역본의』가 인용하고 있는 순구가(荀九家)의 상(象)과 내지덕이 괘효사의 해석에서 활용한 상들을 추가하고 있다.[36] 일례로 그는 동인(同人, ䷌)괘 九四의 효사 "담에 올라가다[乘其墉]"를 해석하면서, 내괘인 離(☲)가 '안은 비어 있고 밖은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담[墉]'을 상징한다고 보았다.[37] 또한 그는 해(解, ䷧)괘 上六

35) 착(錯)이란 乾(☰)·坤(☷)과 같이 음양이 서로 반대인 관계를 의미하며, 종(綜)이란 屯(䷂)·蒙(䷃)과 같이 괘의 상하가 서로 반대인 관계를 의미한다. 내지덕이 그러한 착종의 원리로 『주역』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동진, 「來知德의 괘변설 비판과 괘생성론」, 『철학연구』 제55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2017을 참조.

36) 來知德, 「補定說卦傳」, 『周易集注』(장유임본) 권16. "乾爲天 (…), 荀九家有爲龍, 爲直, 爲衣, 爲言. 來知德有爲郊, 爲帶, 爲旋, 爲知, 爲富, 爲大, 爲頂, 爲戎, 爲武. 坤爲地 (…), 荀九家有爲此, 爲迷, 爲方, 爲囊, 爲裳, 爲黃, 爲帛, 爲漿. 來知德有爲末, 爲能, 爲小, 爲朋, 爲戶, 爲敦. 震爲雷 (…), 荀九家有爲玉, 爲鵠, 爲鼓. 來知德有爲靑, 爲升, 爲蹄, 爲奮, 爲官, 爲園, 爲春耕, 爲東, 爲老, 爲筐. 巽爲木 (…), 荀九家有爲楊, 爲鸛. 來知德有爲浚, 爲魚, 爲草茅, 爲宮人, 爲老婦. 坎爲水 (…), 荀九家有爲宮, 爲律, 爲可, 爲棟, 爲叢棘, 爲狐, 爲蒺藜, 爲桎梏. 來知德有爲沫, 爲泥塗, 爲孕, 爲酒, 爲臀, 爲淫, 爲北, 爲幽, 爲孚, 爲河. 離爲火 (…), 荀九家有爲牝牛. 來知德有爲苦, 爲朱, 爲三, 爲焚, 爲泣, 爲歌, 爲號, 爲墉, 爲城, 爲南, 爲不育, 爲害. 艮爲山 (…), 荀九家有爲鼻, 爲虎, 爲狐. 來知德有爲牀, 爲握, 爲終, 爲宅, 爲廬, 爲丘, 爲篤, 爲童, 爲尾. 兌爲澤 (…), 荀九家有爲常, 爲輔頰. 來知德有爲笑, 爲五, 爲食, 爲毁, 爲眇, 爲西."

37) 來知德, 『周易集注』 권4. "(九四, 乘其墉, 弗克攻, 吉.) 墉, 墻也. 離, 中虛外圍, 墉之象也. 解卦上六變離,

의 효사(公用射隼于高墉之上)에 '墉'이 등장하고, 태(泰, ䷊)괘 上六의 효사(城復于隍)에 '城'이 등장하는 것도, 해당 효의 효변(爻變)으로 해괘의 외괘가 離로 변하고 태괘가 대축괘(䷙)로 변하면서 離의 상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8] 이처럼 내지덕이 「설괘전」에 새롭게 '보정'한 상들은 그가 『주역』 경문을 해석하면서 괘효사의 상징들을 도출하는 주요 원리들 즉 '象・錯・綜・變・中爻'(「易經字義」)가 적용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의 보정을 통해 『주역』 경문과 「설괘전」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역』에서의 象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정설괘」 역시 그의 역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지덕은 서문과 주문에서 두 편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39] 일례로 「계사상」 제8장 '鳴鶴在陰'의 주문에서는 그는 "착간이 많다. 상세한 것은 후편의 고정을 보라"[40]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권16의 「고정계사」와 「보정설괘」는 내지덕이 『주역집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의도한 것으로, 이를 보존하고 있는 장유임본 계통이 『주역집주』의 본모습을 잘 지키고 있으며, 『주역』 해석에서 상의 위상을 확립하고 '착종'을 통해 『주역』을 일관되게 설명하려 한 그의 역학 사상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고앵영본 계통(15권본)에서도 「고정계사」와 「보정설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권16을 삭제하면서 내지덕이 고정하고 보정한 모든 내용이 해당 주문 말미에 옮겨져 있다.[41] 다음으로 자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亦曰墉. 泰卦上六變艮, 大象離, 曰城. 皆以中空外圍也. 此則九三爲六二之墉, 九四在上, 故曰乘."

38) 각주 37) 참조. 내지덕의 '효변'은 소성괘의 일효변을 통해 해당 효사의 상징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원리이다. 그의 효변설에 대해서는 김동진, 앞의 글, 49-52면; 임재규, 「정약용과 래지덕의 효변설 비교」, 『철학탐구』 제38집,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5, 2-24면 참조. 또한 내지덕은 괘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상징들을 서술하면서 효변의 상과 대상(大象)의 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상의 상이란 대축(䷙)의 대상을 리(☲)로 하는 것과 같이 대성괘에서 인접한 효들의 음양이 같을 때 그 효들을 하나의 효로 묶어서 도출된 소성괘의 상징을 의미한다. 來知德, 「易經字義・象」, 『周易集注』 권수. "聖人立象, 有卦情之象, 有卦畫之象, 有大象之象, 有中爻之象, 有錯卦之象, 有綜卦之象, 有爻變之象, 有占中之象." 그가 상징을 도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 『다산학』 제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b, 328-336면 참조.

39) 서문에서 두 편을 언급하고 있는 예는 각주 46)을 참조.

40) 來知德, 『周易集注』 권13. "但多錯簡, 詳見後篇考定."

41) 일례로 고앵영본의 권13 「계사상」 제8장 "鳴鶴在陰" 條의 주문 말미에는, "○來子考定, 此節在繫

4. 본문 자구의 異同

두 판본 계통이 본문 자구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장에서는 두 판본 계통의 건괘(乾卦) 주문(권1)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42]

①"乾元亨利貞"의 주

장본: (…) 若其不貞, 少有人欲之私, 則人事之當然者廢, 又安能元亨乎. 故文王言, 筮得此卦者大亨而宜于正固, 此則聖人作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教人以反身修省之切要也. 學者能于此四字潛心焉, 傳心之要不外是矣. 此文王占卜所繫之辭, 不可卽指爲四德. 至孔子文言, 純以義理論, 方指爲四德也. 蓋占卜, 不論天子, 不論庶人, 皆利于貞, 若卽以爲四德, 失文王設教之意矣.

—'于': 四庫全書本, 作'於'. 以下同.

고본: (…) 不貞, 則非理之當然, 安能大亨. 此聖人教人以反身修省之切要也. 言凡占卜者, 不論天子庶人, 皆宜于貞, 以盡人事. 若卽以爲四德, 疑失先王立教之意矣. 至孔子文言, 純以義理論, 方指爲四德也.

②"初九, 潛龍勿用"의 주

장본: (…) 諸爻倣此. 易不似別經, 不可爲典要, 如占得潛龍之象, 在天子則當傳位, 在公卿則當退休, 在士子則當靜修, 在賢人則當隱逸, 在商賈則當待價, 在戰陣則當左次, 在女子則當愆期, 萬事萬物莫不皆然. 若不知象, 一爻止一事, 則三百八十四爻止作得三百八十四件事矣. 何以彌綸天地. 此訓象訓字訓錯綜之義, 圈外方是正意. 三百八十四爻倣此. ○初九陽氣方萌, 在于卦下, (…)

고본: (…) 諸爻倣此. 圈外方是正意. ○初九陽氣方萌, 居于卦下, (…)

③"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의 주

辭下第五章, 不出戶庭之下."라는 구절이 부가되어 있고, 권15「설괘전」마지막 장 "乾爲天爲圜" 조의 주문 말미에는, "○來子補定, 有爲郊, 爲帶, 爲旋, 爲知, 爲富, 爲大, 爲頂, 爲戎, 爲武."라는 구절이 부가되어 있다.

42) 본문 비교 시 장유임본 계통의 경우, 장유임본, 최화본, 사고전서본을 사용하였고, 고앵영본 계통의 경우, 육의헌본, 주대장본, 부영배본(선성당본), 무구비재역경집성본을 사용하였다. 고앵영본 계통끼리는 자구 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장유임본 계통끼리는 사고전서본만 드물게 차이를 보인다. 아래에서 '장본'은 장유임본 계통을, '고본'은 고앵영본 계통을 의미한다.

장본: (…) 利見大人者, 利見九五之君, 以行其道也. 如仕進則利見君, 如雜占則卽今占卜利見貴人之類. 此爻變離, 有同人象, 故利見大人. (…)

고본: (…) 利見大人者, 利見九五之君, 以行其道也. 此爻變離, 有同人象, 故利見大人. (…)

④"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의 주

장본: (…) 乾乾之象, 乃健而不息也. 終日是晝, 夕則將夜, 惕憂也. 變離錯坎, 憂之象也. 若, 助語辭. 夕對日言. 終日乾乾夕惕若者, 言終日乾乾, 雖至于夕, 而兢惕之心, 猶夫終日也. (…)

고본: (…) 乾乾之象, 乃健而不息也. 惕憂也. 變離錯坎, 憂之象也. 若, 助語辭. 夕對日言. 言終日乾乾, 雖至于夕, 而兢惕之心, 猶夫終日也. (…)

⑤"上九, 亢龍有悔"의 주

장본: 上者, 最上一爻之名. 亢, 以戶唐切, 人頸也, 以苦浪切, 高也. 吳幼淸以人之喉骨剛而居高是也. 蓋上而不能下, (…)

고본: 上者, 最上一爻之名. 亢, 人頸也, 高也. 蓋上而不能下, (…)

⑥"彖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의 주

장본: (…) 故亦以彖曰起之. 彖者材也, 言一卦之材也. 後人解彖者斷也, 又解豕走悅, 又解爲茅犀之名, 不如只依孔子材之一字可也. 下文象曰象字亦然. 易本占卜之書, 曰元亨利貞者, 文王主于卜筮以教人也. (…)

고본: (…) 故亦以彖曰起之. 曰元亨利貞者, 文王主于卜筮以教人. (…)

⑦"大明終始, 六位時成, 時乘六龍以御天"의 주

장본: 大明者, 默契也. 終謂上爻, 始爲初爻, 卽初辭擬之, 卒成之終, 原始要終以爲質也. 觀下句六位二字可見矣. 六位者, 六爻也, 時者, 六爻相雜惟其時物之時也. 爻有定位, 故曰六位. 六龍者, 潛與亢之六龍六陽也. 陽有變化, 故曰六龍. 乘者憑據也, 御者御車之御, 猶運用也. 上文言統者, 統治綱領, 統天之統, 如身之統四體. 此節言御者, 分治條目. 御天之御, 如心之御五官. 六位時成者, (…)

—'始爲': 四庫全書本, '爲'作'謂'.

고본: 大明者, 默契也. 終謂上爻, 始爲初爻. 原始要終以爲質也. 六位者, 六爻也, 時者, 六爻相雜惟其時物之時也. 六龍者, 潛與亢之六龍六陽也. 陽有變化, 故曰六龍. 乘者憑據也, 御猶運用也. 上文言統者, 統治綱領. 此節言御者, 分治條目. 六位時成者, (…)

위의 비교를 통해 장유임본의 주문이 고앵영본에서는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장본'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이 모두 고앵영본에는 없는데, 이를 통해 유안류가 『주역집주』를 중각하면서 삭제한 '번쇄하고 중복되는 어구[煩覆重複之語]'들의 특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또한 ①"乾元亨利貞"의 주문을 비교해보면, 글자가 다르거나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안류가 자구들을 삭제하고 끊긴 문맥을 재정리하면서 이러한 자구 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 대다수 반복되는 표현들이라 내지덕의 본뜻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앵영본이 『주역집주』의 본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례로 ①"乾元亨利貞"의 주문 중 장유임본의 "失文王設教之意"와 고앵영본의 "失先王立教之意"를 비교해보자. 그 의미는 '원형이정'을 네 가지 독립된 덕목(四德)으로 보는 공자의 해석(乾卦 「文言傳」)이 해당 괘사에 담긴 문왕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앵영본의 '先王'보다는 장유임본의 '文王'이 더 명확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設教'와 '立教'의 차이가 있는데, 『주역』 경문에 오직 '設教'의 용례만 등장한다는 점[43]을 고려한다면, 장유임본의 '設教'가 보다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⑤"上九亢龍有悔"의 주문에서 오징(吳澄: 字幼清, 號草廬, 1249-1333)의 해석이 고앵영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집주(集注)'라는 서명에서 볼 때 오징의 해석을 보존하고 있는 장유임본이 그 본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5. 게재 도설의 多少

장유임본 계통과 고앵영본 계통은 게재된 도설의 수(數)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두 판본 계통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도설들은 아래의 「易注雜說諸圖總目」(이하 「총목」)에 제시된 것들에 불과하다(⑰번 제외). 장유임본 권수의

43) 「觀卦 彖傳」, 『周易』.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총목」을 보면,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梁山來知德圓圖
②伏羲六十四卦圓圖
③伏羲八卦方位(圖)[44]
④文王八卦方位(圖)
⑤伏羲文王錯綜圖
⑥孔子太極生兩儀四象八卦圖
⑦來知德八卦變六十四卦圖
⑧來知德八卦所屬相錯圖
⑨來知德八卦六爻變自相錯圖
⑩來知德八卦次序自相綜圖
⑪來知德八卦所屬相綜文王序卦正綜圖
⑫來知德八卦四正四隅相綜文王序卦雜綜圖
⑬來知德八卦正位圖
⑭來知德上下經篇義
⑮來知德易經字義(象・錯・綜・變・中爻)
⑯來知德易學六十四卦啓蒙
⑰來知德考定繫辭上下傳補定說卦傳
⑱來知德周易集注改正分卷圖
⑲來知德發明孔子十翼圖

장유임본과 그 계통에 속하는 판본들의 경우 「총목」에 제시된 위의 도설들 이외에는 실려 있지 않으며, 도설의 실제 배치도 ⑯번과 ⑰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목」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45] 앞서 언급한 것처럼 ⑰번은 권16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⑯번은 도설(권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 위의 도설들은 내지덕 자신이 서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로, 그 배열순서 또한 내지덕이 언급한 순서와 일치한다.[46] 이를 통해서도 장유

44) ③번과 ④번의 경우 '圖'자가 「총목」에서는 빠져있지만, 실제 도설 제목에는 들어가 있다.
45) 최화본의 경우 장유임본과 동일하며, 사고전서본의 경우 ⑭, ⑮, ⑱, ⑲번을 ①번 「圓圖」 앞에 배치하고 있지만 「총목」의 순서 및 나머지 도설들의 배치는 장유임본과 같다.
46) 來知德, 「序」, 『周易集注』 卷首. "注旣成, 乃僭于伏羲文王圓圖之前, 新畫一圖, 以見聖人作易之原. 又畫八卦變六十四卦圖, 又畫八卦所屬相錯圖, 又畫八卦六爻變自相錯圖, 又畫八卦次序自相粽圖, 又畫八卦所屬自

임본과 그 계통이 『주역집주』의 본모습을 잘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앵영본 계통에는 「총목」에 언급된 도설들 이외에도 다량의 도설들이 실려 있다. 고앵영본 계통에서는 권수가 상하로 분리되어 있으며, 「총목」도 ①번부터 ⑬번까지의 「제도(諸圖)」와 ⑭번부터 ⑲번까지의 「잡설(雜說)」[47]로 구분하여 각각 권수의 상하에 배치되어 있다.[48] 권수 상(上)에는 「제도」의 도설들 다음에 「來圖補遺」(이하 「보유」)란 제목 아래 19개의 도설들이 추가되어 있으며, 권말 「부도(附圖)」에는 100여 개의 도설들이 실려 있다.[49] 현재 이 도설들은 내지덕 역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50], 그것들이 모두 내지덕의 저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권수 「보유」의 19개 도설들은 아래와 같다.

①太極圖
②伏羲卦圖
③伏羲八卦方位圖
④兩儀圖
⑤八卦通皆乾坤之數圖
⑥陽直圖
⑦陰直圖
⑧天上月輪圖
⑨文王八卦方位圖
⑩一年氣象圖
⑪一日氣象圖
⑫天地形象圖

相綜文王序卦正綜圖, 又畫八卦四正四隅相綜文王序卦雜綜圖. 又發明八卦正位及上下經篇義, 竝各字義, 又發明六十四卦啓蒙, 又考定繫辭上下傳, 又補定說卦傳以廣八卦之象, 又改正集注分卷, 又發明孔子十翼." 「총목」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47) ⑰의 「考定繫辭上下傳」과 「補定說卦傳」 아래에는 '劉刪'이라 기록되어 있다.

48) 卷首下에는 「雜說」 앞에 高翀映의 「瞿唐來矣鮮先生本傳」이 실려 있다. 이 「본전」은 장유임본 계통에는 없다.

49) 高翀映本의 「附圖目」, 『新刻來瞿唐先生易注』 卷首에 기록된 도설의 개수는 총 102개이지만, 실제 卷末 「附圖」의 도설 개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권말 「부도」에 실린 '制器尙象十三卦'는 「부도목」에는 빠져 있다.

50) 일례로 저명한 역학자 高懷民은 내지덕의 역학을 해설하면서 「부도」의 도설들을 활용하고 있다. 高懷民, 「第六章 來知德的易學」, 『宋元明易學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참조.

⑬帝王圖
⑭歷代文章圖
⑮周家圖
⑯歷代人才圖
⑰秦始皇圖
⑱一日混沌圖
⑲天下混沌圖

고앵영의 「범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역주』의 목판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선생의 『일록』에 있는 태극도 및 여러 도설을 구할 수 있었다. (…) 지금 그것들을 보충해 넣어 한편으로는 저자의 정미하고 깊은 연구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술자가 집성한 자료들을 보여서 후진에게 보탬이 되고자 번다해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51] 고앵영이 밝힌 것처럼 「보유」의 19개의 도설들은 모두 내지덕의 『일록』 권1의 「弄圓篇」에 보이는데, 그 배치순서도 「농원편」의 그것과 일치한다. 결국 '來圖補遺'란 명칭은 「보유」의 도설들이 내지덕의 저작임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번부터 ⑧번까지의 도상들을 제외한 「보유」의 도상들은 모두 음양의 대대(對待)와 유행(流行)을 상징하는 「총목」의 '圓圖'(①'태극도'와 동일)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일례로 ⑨'문왕팔괘방위도'는 '원도'의 원 외곽에 '문왕팔괘'를 배열한 것이다. 도설의 내용 또한 「농원편」의 해당 도설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일록』의 「농원편」에서 채록한 흔적이 역력하다.[52] 다음으로 권말 「부도」의 도설들을 살펴보자.

고앵영의 「범례」에 "도상과 계몽을 권수에 배열하고 채집한 도설들을 권말에 부가하였다"[53]는 기록이 있어, 권말의 「부도」가 그에 의해 부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부도」의 도설들이 누구의 저작인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서근정(徐芹庭)의 연구에 의해 그 대다수가 명대 호거인(胡居仁: 字叔心,

51) 高翮映, 「凡例」, 『新刻來瞿唐先生易注』. "易注成梓後, 始訪得先生日錄諸稿中有太極諸圖. (…) 今爲補入, 一以見作者精研之深, 一以見述者大成之集, 裨益後進, 不厭其多."
52) 일례로, ①'太極圖'의 도설에서 "○朱子說, 未有天地之先, 畢竟先有此理. 此句說得不是. 有物方有理. 程子說, 在物爲理, 說得是." 구절은 『일록』에 있지만, 「보유」에는 없다. 또한 「보유」는 ⑬'帝王圖'부터 도상만을 싣고 있다.
53) 高翮映, 「凡例」, 『新刻來瞿唐先生易注』. "以圖象啓蒙列之卷首, 採圖附之卷末."

1434-1484)의『역상초(易像抄)』와 장황(章潢: 字本淸, 1527-1608)의『도서편(圖書編)』(1577)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54], 필자도 이를 확인하였다.

호거인의『역상초』에서 채집된 도설들은 대체로「부도」의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데,『역상초』(사고전서본) 권1-권5에 보인다. 이 도설들에는 도상의 제목 아래 등에 '像抄定'이라 적혀 있는데, 이는 도상의 출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四象珓圖'의 도설은『역상초』권5의 '四象珓圖'와 그 해설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55]

장황의『도서편』에서 채집된 도설들이 가장 많은데,「부도」전반부의 '太極河圖'부터 '洛書日月交圖'까지의 도설들과 중후반부의 도설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 도설들은 易의 도설들을 모아놓은『도서편』(사고전서본) 권1-권9에 보인다. 이 도설들 중 일부가 해설 마지막에 주석의 형태로 출전을 밝히고 있어,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56] 일례로 '太極六十四卦圖'의 도설은『도서편』권2의 '太極六十四卦圖'와 그 해설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57]

그 이외의 도설들 중 일부는,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명대 학자 구구사(瞿九思: 字睿夫, 1546-1617)와 고앵영 자신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 '洪範倣河圖之圖'와 '律呂合河圖洪範圖'의 도상에는 '瞿九思定'이라 적혀 있고, '天與日會圓圖'의 도상에는 '高雪君參定'이라 적혀 있어 작자를 예상할 수 있다.

---

54) 徐芹庭,『易圖源流: 中國易經圖書學史』, 北京: 中國書店, 2008, 425-546면 참조.

55)「부도」'四象珓圖'의 도설 전반부는 "雲行雨施, 電發雷震, 陰陽二少, 無日不交合于二太中. 此二太所以分爲二, 而二少所以合爲一, 俗占用少不用老. 朱子曰, 康節以四起數, 想它看見天下事, 纔上手來便成四截了. (…)"로 되어 있는데, 이는『역상초』권5의 해당도설 "雲行雨施, 電發雷震, 陰陽二少, 無日不交合于二太中. 此二太所以分爲二, 而二少所以合爲一, 俗占用少不用老. 此乃所謂日用不知之百姓已耳. 張行成曰, 天地自然之理, 無出乎四象者, 孔子混四者, (闕)太極也. 故億萬世不可易. 朱子(闕)以四起數, 自易以後, 無人做得一物如此整齊, 包括得盡. 又曰想它看見天下事, 纔上手來便成四截了. (…)"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56) 일례로,「부도」의 '洛書日月交'의 도설 끝에 '河圖天地交洛書日月交論'이라 적혀 있는데, 이는 도설의 출전이『도서편』권1의 '河圖天地交洛書日月交總論'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반부의 도설들만 출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중후반부의 도설들은 출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57) 일례로「부도」'太極六十四卦圖'의 도설은,『도서편』권2의 해당도설 "此圖卽先天圖, 圖次序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秩然於一圖之中. 陽在左而上下皆陽包乎陰, 陰在右而上下包乎陽. 雖卦位稍參差不齊, 實於卦爻當與以己意, 而有一毫增損于其間也. 卽其圖而玩之, 卦雖畫於聖人, 其陰陽消長之漸, 姤復之機, 孰非天地自然之造化哉. 陳剩夫曾以此圖上之憲宗朝, 原圖下有一心字, 以圖當中心一點, 未免視圖與心爲二也, 今止存其圖云. 夫卦止六爻, 六爻卽六位也. (…) 是造化固不由積累而成, 而詳玩此圖, 謂其無漸次不可也. 觀天地之化機, 而人心其卽天地乎哉. 是可以識心學矣. 噫以此洗心密藏, 何往不然 (…)."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출전이 확인되지 않은 도설들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고앵영이 추가한 권말 「부도」의 도설들은 내지덕의 저작은 아니므로, 활용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 그 도설들이 어떠한 연구의 가치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서근정이 언급한 것처럼 그것들은 송명 대의 '易圖學'(또는 圖書學)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58] 특히 『도서편』이나 『역상초』는 명대 역도학의 대표적 성과로, 자신의 역학을 도설로 표현하려 한 내지덕의 시도는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역학사상을 당대의 역도학 전통에서 조명하고자 할 때, 「부도」의 도설들은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주역집주』의 주요판본인 장유임본과 고앵영본을 비교・고찰하여 두 계통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고앵영본에만 실려 있는 도설들의 유래에 대해 밝힌 것이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판식 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장유임본 계통과 고앵영본 계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는 '권16'의 유무다. '권수'를 제외하고 장유임본 계통은 모두 16권본이지만, 고앵영본 계통은 15권본이다. 장유임본의 '권16'은 「考定繫辭上下傳」, 「補定說卦傳」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앵영본 계통에는 모두 이 두 편이 없다. 둘째는 본문 자구 상의 이동이다. 건괘 주문(권1)의 비교를 통해 장유임본의 주문이 고앵영본에서는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게재된 도설의 다소다. 고앵영본 계통에는 '권16'이 없는 대신 '권말' 1권이 부가되어 있는데, 권말의 「부도」에는 100여 개의 도설이 실려 있으며, 권수에도 「보유」란 제목 아래 19개의 도설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장유임본 계통에는 그 도설들이 모두 없다.

58) 徐芹庭, 앞의 책, 425-426면.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 장유본에는 오직 내지덕이 서문에서 직접 언급한 도설들만이 게재되어 있고, 본문의 자구가 생략되어 있지 않으며, 그가 서문에서도 명시한 「고정계사상하전」과 「보정설괘전」이 보존되어 있고, 특히 이 두 편이 그의 역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유임본 계통이 『주역집주』의 본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선본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고앵영본에만 있는 권수 「보유」의 19개의 도설과 권말 「부도」의 100여 개의 도설이 내지덕과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보유」의 19개의 도설은 내지덕의 『일록』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내지덕의 저작이지만, 「부도」의 도설들은 대다수 명대 학자 호거인의 『역상초』와 장황의 『도서편』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또한 그 이외의 도설들 중 일부가 구구사와 고앵영 자신의 저작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비교·고찰을 통해 장유임본 계통이 선본임을 밝히고, 내지덕 역학의 연구에서 종종 활용되고 있는 「부도」의 도설들이 내지덕과 무관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고앵영본이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유임본에도 오탈자는 존재하는데[59], 고앵영본은 이를 바로잡고 내지덕의 본뜻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도」의 도설들도 송명 대의 역도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당대의 역도학 전통에서 그의 역학사상을 조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참조한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소장본 『新刻來瞿唐先生易注』(六宜軒本)의 문헌적 가치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이 책에는 모든 『주역』 경문에 조선시대의 구결(口訣)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첨(題簽)에는 '명중(明重)'·'서경창인(徐慶昌印)'·'학포헌인(學圃軒印)' 세 장서인

59) 일례로 「총목」의 ①'圓圖' 도설에서 "皆尙乎其中"(장유임본 계통)의 '尙'자는 고앵영본에는 '寓'자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장유임본이 오자인 듯하다. 陳培榮, 앞의 글, 208면 참조. 또한 「총목」의 ⑱'來知德周易集注改正分卷圖'는 당대에 유행한 '周易傳義'류의 분권을 비판한 것으로, 그 도설에서 "泰附復"의 '復'자는 '履'의 오자이며, "晉附井"은 전후 문맥상 "晉附大壯, 家人附明夷, 蹇附睽, 夬附益, 萃附姤, 革附井"이 되어야 맞는데, 장유임본의 重刊 과정에서 일부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오류는 고앵영본도 마찬가지다.

(藏書印)이 있다.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서경창'에 대한 기록이 보여[60], 이 책이 그의 장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영조 34년(1758)에 태어나 승문원과 비변사 서리를 지낸 서경창은,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시사(詩社) 중 하나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이기도 하였다.[61] 그러므로 이 책은 조선 후기의 내지덕 역학의 유행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결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문헌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60) 劉在建, 『里鄕見聞錄』(1862) 권3. "徐學圃軒慶昌, 字明重, 以籌司椽, 得種藷方, 注解彦譯, 頒于八路, 爲備荒之資."

61) 서경창에 대해서는 宋萬午, 「韓國의 近代化에 있어서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硏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1999, 7-27면, 第二章 第一節 '徐慶昌의 학문과 활동' 참조.

*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음을 밝힌다. 본 논문의 심사위원들과, 서지 용어의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고려대 도서관 한적실의 구자훈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 참고문헌

來知德,『周易集注』(a, 明萬曆三十八年刊本), 日本 岡山縣立圖書館所藏本.
_____,『周易集注』(b, 四庫全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_____,『梁山來瞿唐先生易注』(清康熙二十七年刊寶廉堂藏板, 乾隆十一七年刊懷德堂藏板), 高麗大 圖書館所藏本.
_____,『新刻來瞿唐先生易注』(a1, 清康熙年間刊六宜軒藏板),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新刻來瞿唐先生易注』(a2, 清康熙年間刊六宜軒藏板), 日本 京都大學圖書館所藏本.
_____,『新刻來瞿唐先生易注』(b, 清雍正七周大璋重刊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_____,『新刻來瞿唐先生易注』(c, 清朝爽堂重刊本影印), 嚴靈峯 編, 無求備齋易經集成 63-66권, 成文出版社, 1976.
_____,『來瞿唐先生易注』(清善成堂藏板), 日本 京都大學圖書館所藏本.
_____,『易經來注圖解』(鄭燦訂正), 成都: 巴蜀書舍, 1988.
_____,『易經集注』(寶廉堂本影印), 上海: 上海書店, 1988.
_____,『重刻來瞿唐先生日錄』(『續修四庫全書』 子部・雜家類 112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章 潢,『圖書編』(四庫全書珍本五集), 臺北: 商務印書館, 1971.
朱 熹,『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胡居仁,『易像抄』(四庫全書珍本初集), 臺北: 商務印書館, 1969.

김동진,「來知德의 괘변설 비판과 괘생성론」,『철학연구』 제55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2017, 31-60면.
김영우,「조선 후기 來知德 易學의 수용과 비판」,『인문논총』 제72권 제1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5a, 391-420면.
_____,「다산 정약용의 내지덕 역학 비판」,『다산학』 제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b, 325-358면.
劉在建, 實是學舍 古典文學硏究會 譯註,『里鄕見聞錄』, 민음사, 1997.
임재규,「정약용과 래지덕의 효변설 비교」,『철학탐구』 제38집,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5, 1-27면.
宋萬午,「韓國의 近代化에 있어서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硏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1999.
전인초 主編,『韓國所藏中國漢籍總目(經部)』, 학고방, 2005.

高懷民,『宋元明易學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謝鶯興,「來知德《周易集注》板本考述」,『東海中文學報』 第一三期, 臺灣東海大學中文系, 2001.
徐芹庭,『易圖源流: 中國易經圖書學史』, 北京: 中國書店, 2008.
_____,『來氏易經象數集注』, 北京: 中國書店, 2009.
吳 偉,「《周易集注》的早期板本」,『圖書情報工作』 第十一期,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2011.
中國古籍總目編纂委員會 編,『中國古籍總目(經部一)』, 北京: 中華書局, 2009.
陳倍榮,「來知德《周易集注》初刻本考」,『儒家典籍與思想硏究』, 北京大學《儒藏》編纂與硏究中心, 2013.

【Abstract】

A study on editions of Lai Zhide (來知德)'s *Zhouyi Jizhu* (周易集注)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Zhang Weiren (張惟任) and Gao Wengying (高裔映)'s Edition—

Kim, Dong-Ji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i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editions of Lai Zhide's *Zhouyi Jizhu*, Zhang Weiren's (Zhang) and Gao Wengying's (Gao), to clearly prese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ranches, while revealing the origin of the diagrams that are only contained in Gao's.

According to the writer's review, the difference between Zhang's branch and Gao's branch is appeared in three main aspects, other than their differences in printing. First difference is whether or not there exists a volume of sixteen. Zhang's consists of sixteen volumes in total, however, Gao's only has fifteen. The sixteenth volume of Zhang's has two episodes, Kaoding Jicishangxiachuan (考定繫辭上下傳) and Buding Shuoguachuan (補定說卦傳), which Gao's does not. Second difference is how the characters and phrases are differ from each other. Through the comparison of Volume one (*Zhouyi Jizhu*), we could confirm that the several of the paragraphs are omitted. Third difference is number of diagrams and descriptions. Gao's has Juanmo (卷末), but has no volume sixteen. There are over a hundred diagrams and descriptions at the Futu (附圖) of Juanmo, as well as 19 of them in the Juanshou (卷首) under the name of Buyi (補遺); however, there is none in Zhang's.

Main question is, Gao's diagrams and descriptions, 19 of Buyi and well over a hundred of them of Futu, are how related to Lai Zhide. According to the writer's review, Buyi's diagrams and descriptions originated from *Rilu* (日錄) written by Lai Zhide, but the diagrams and descriptions in Futu are mostly excerpts from the of Hu Juren (胡居仁)'s *Yixiangchao* (易像抄) and Zhang Huang (章潢)'s *Tushubian* (圖書編), while some of them were works of Qu Jiusi (瞿九思) or Gao himself.

* Lecture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eywords: Lai Zhide, *Zhouyi Jizhu*, Zhang Weiren (張惟任), Gao Wengying (高爀映), *Yixiangchao* (易像抄), *Tushubian* (圖書編), Qu Jiusi (瞿九思).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